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어느 학생문학상 덕분에 매년 넘게 뜻 뜻한 소설들을 읽는 호사를 누렸다. 여러 달 동안 학생들이 온라인에 작품을 올리면, 소위 멘토 작가가 조언을 해 주고, 학생들이 퇴고해서 최종 투고하는 방식이었다. 임상 학생들과 직접 만나 1박 2일 동안 문학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주로 중학생의 소설을 만났는데, 지도했다기보다는 외려 느끼고 배웠다. 다 같은 소설이 아니다. 소비 행태로 나누면 가장 널리 사랑받는 웹 소설 혹은 인터넷 소설, 과거에는 대중 소설로 편 휘당하기도 했지만 지금 대신인 장르 소설, 교과서에서 배운 소설과 유사한 클래식 음악 같은 본격 소설. 이야기 방식으로 나누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주는 듯한 리얼리즘, 마음의 풍경을 그리는 모

소중한 기록자들

더니즘,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그럴 듯하게 다루는 판타지, 여러 경향을 짝 뿔한 퓨전……. 그밖에도 얼마든지 소설을 나눌 수 있다. 전문가들이나 그런 쓸데없는 분류를 하는 줄 알지만, 실은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 자기가 좋은 혹은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설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으면 좋은, 재미있는 소설이고 안 맞으면 소설도 아닌 것이다. 대개의 소설가들은 평생 소설을 읽고 평생 소설을 써온 사람들로써 소설에 관련한 최고로 잘 아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쓴 소설에 대한 문의한들의 물이 해와 물인정이 어리둥절할 수도 있었지만, 당연한 것이다. 독자는 자기만의 소설관에 따라 소비할 뿐이니까. 실은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작가들도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쓰는 존재라는 걸, 중학생들이 잘 보여 준다. 정말 말이지 천재의 향연 같았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때, 그토록 할 것도 많고 제약도 많으며 즐길 것도 넘쳐 나는 시대에, 그처럼 정성껏 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한 학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우주를 날아다니고 미래 세계를 넘

나두고 헛것에 집착하는 판타지가 주류였지만, 역사로부터 성실히 배우려는 알레고리도 있었다. 지금의 학교 문제를 정면으로 고발하는 리얼리즘도 있었고, 마음의 파동을 치열하게 포착한 모더니즘도 있었다. 편의상 억지로 분류한 것일 뿐, 공들여 쓴 소설들에는 저마다의 음색과 재능과 감각이 물씬 배어 있었다. 그렇게 천재적인 작품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덜 배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교과서 소설이 문제인 것은 소설이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방식이 문제다. 소설 한 편을 해체하여 분석품 설명서 외우듯 한다. 그렇게 배우면 당연히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 같은 본격 소설은 무조건 재미없는 것으로 고정 관념처럼 박힌다. 아직 오염되지 않은 중학생은 자기만의 문체로 뭔가를 열정적으로 썼다. 아직 소설이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소설이라고 믿는 글을 썼다. 내 방식으로 소설들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순위까지 가렸지만, 그들의 글은 판매들이 모르는 새로운 차원을 두드러는 새싹인지도 모른다. 이 소중한 천재들은 무사히 성장할 수 있을까? 십대에 아무리 잘해도 국가 대표급은커녕 어른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분

야가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다면 문학계다. 아무리 잘 써도 구상유취하다는 평가를 받을 데다. 이런 상황이 다행한 일이다. 만약 올림픽 금메달 같은 거라도 걸려 있다면 문학도 스포츠계와 예능계에서 흔히 보는 조지스타 시스템의 폐해로 꼴이 말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암투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생활은 쉽지 않을 것이고 소설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가졌던 음색과 재능과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터이니 말이다. 그것은 훌륭한 스승들이 제시한 것대로 자신의 생각과 글을 재단하는 자기 검열에 익숙해지는 데서 비롯된다. 결국 평준화되는 것이다. 희귀종들이 고맙다. 진지하게 소설을 쓰는 학생들이 이만큼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튼튼하다는 증거다. 이 소중한 기록자들은, 어른들로부터 흔히 스마트폰 게임 중독자 취급을 받는 요즘 학생들도, 저마다 다양한 생각과 느낌으로 서로 존중하고 어른을 비판적으로 응시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세대의 대표로서 증명해 준 것이다. 그중 몇몇은 미래에도 자기 세대의 기록자 노릇을 맡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종교칼럼

친구



홍현 화순 옹현사 주지스님

‘나아 들어 남는 건 친구 밖에 없어!’ 아침에 양치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다. 젊었을 때 친구는 마치 공기 같은 존재였다. 항상 물려다니며 일상을 같이했다. 청춘의 친구는 ‘나’를 무장 해제시킬 만큼 강한 구심력으로 서로를 끌어 당기는 그런 존재였다. 지금은 그런 친구가 있거나 한 지 매우 의심스럽다. 친구라고 하면 젊었을 적의 친구의 이미지만 머리 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지 지금껏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몽둥거리 지인이라고 불렀다. 언제부터인가 친구같은 지인이 하나 둘 생기고 있다. 젊은 시절의 친구와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어제, 그런 지인 중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을 갔다. 한시간 이상 이

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질 무렵에 미안한 마음과 함께 봉투를 내밀었다. 지인 역시 미안해 하며 받는다. 정말 스스럼없는 친구라면 이런 미안함 따윈 없었을 것이다.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 보다는 정서적으로 가깝지만 그렇다고 공기 같은 친구는 아닌 어중간한 관계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문안을 갔다 온 뒤로 일종의 중만함이 한동안 마음 한 구석을 차지했다. 친구라는 말을 잊고 산 지가 꽤 오래 되었다. 알고 보면 햇살은 항상 변함없이 비치지 않는다. 하루 중에는 밤도 있고, 어스름한 새벽, 땅거미 내린 저녁도 있다. 흐린 날도 있고, 비나 눈이 오는 날도 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미세 먼지가 심해서, 너무 더워서, 아니면 너무 추워서 실내에만 있는 날도 부지기수다. 이런 저런 시간들을 빼고 나면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은 의외로 적다. 나이 들어 보는 친구들은 ‘나’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는 햇살 같은 존재다. 나아가 들어 친구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햇살이 그리운 혼자만의 삶이 그만큼 깊이 뿌리내렸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본의 TV 드라마 ‘심야

식당’을 보면 에피소드가 중간을 넘어갈 무렵이면 으레 눈부신 도시의 밤거리를 배경 삼아 굵고 낮은 남자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온다.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하지만 어쩔지 아쉬운 마음에 옆길로 새고 싶은 날도 있다.” 사회 속에서 개인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개인이 느끼는 허기 역시 커진다. 퇴근길에 어쩔지 아쉬워 옆길로 새고 싶은 마음, 이것은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느끼는 개인적인 허기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화 역시 발전하듯, 개인의 삶에서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개인화는 깊어진다. 퇴근길에 옆길로 새는 소소한 일탈이 사회적 차원의 허기를 채운다면, 나이 들어 만나는 친구는 한 개인의 삶에 드리는 무의식적인 허기와 쓸쓸함을 채워준다. 곁으로 보기에 인생은 각자 혼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이 육신이 곧 ‘나’라는 느낌을 어쩔면 이런 물리적 속성의 자연스런 반영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를 놓고 보더라도 인간은 결코 개인으로 자립하여 깨끗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퇴근길에

엔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나이 들어 거침 보는 친구가 반가운 것도 결국은 같은 이유다. 비록 육신은 개인으로 헤어져 있으나 영혼은 그렇지 않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구별 같은 건 무의미하다. 어쩔면 육신이 그러하듯 영혼도 날날이 헤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정서적 허기와 쓸쓸함에 빠지게 하는지도 모른다. 고 신영복 선생은 술하게 많은 출소자들을 감옥 밖으로 떠나 보내며 “빈약한 동거의 어느 어중간한 중도막에서, 바깥 사람이라면 별리의 정한이 자리했을 빈터에, 나는 그에게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뜨개질해왔던가? 하는 답답한 자성의 물음을 간추리게 된다”고 하였다. 친구라고 부르는 순간, 친구라는 이름에 얽매어서 더 이상 친구가 아니게 된다. 아침에 양치를 하다가 거울 속의 한 사람을 발견하며 불쑥 선성의 글을 떠올린다. 선생처럼 항상 담담하게 스스로를 성찰하는 마음이 친구를 더욱 빛나게 한다.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자기 성찰을 깨닫지 하지 않아야 나 역시 좋은 친구가 된다.

기고

부동산 ‘대책’이 아닌 ‘개혁’이 필요하다



양성관 동강대학교 교수

신조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을 5포 세대라고 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다는 현 시대를 풍자한 신조어이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되어간다.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다수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의원부터 정부 관료들 대부분이 서울의 강남 노른자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2·3채 이상 소유하고 있어, 최근 몇 개월 동안 가격이 4·5억 원 이상 상승한 것을 보면 이들이 만들어낸 정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 어찌 현 정부의 정책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고작 내세운 정책이 수도권에 신규 주택지를 추가로 만들어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고나 양도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주무 장관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바뀔 것이다. 또한 세금은 다른 계약서를 통해 줄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액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세금 정도는 우습게 보게 되는 것 같아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정부의 이번 대책은 몇 개월 못가 흐르지고 다시 가격이 폭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10년에 이미 100%를 넘겼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 집값이 굳이 상승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아파트 99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욕심내 100채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 정부에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고 한들 돈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가 돌아가겠는가? 저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부를 축적하도록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책’이란 어떤 일의 문제에 대처하는 소극적

정책이고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적극적 정책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돼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 신규 아파트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업자의 말을 빌려 아파트를 지어 팔만한 분양되어도 손해는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건설회사들은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짓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이익이 되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는 아파트가 지어질지 모르겠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 현재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해야 서민도 아파트를 구매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둘째는 대한민국은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1가구가 최대한 소유할 수 있는 집수를 합의하고, 합의된 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어 소유한 집을 매물로 내놓도록 하면 공급이 늘어 아파트 가격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매매가 불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범죄 행위로 취급하여 자격증을 취소하고 높은 벌금을 부과해 세금을 낮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아파트 가격 담합을 조장하는 부녀회나 주민 대표 등이 발견되면 범죄 행위로 취급하여 영장난 벌금과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식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아파트는 주거의 공간이지 가진 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인 데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어간다. 그동안 국민 지지율이 60%를 넘나들며 역대 대통령 중 최고로 평가된다. 남북 관계나 적폐 청산 등의 치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집값을 잡은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젊은이들에게 있어 5포 세대라는 용어는 과거 무능했던 정부의 산물이고, 청년이 열심히 일하면 자신이 번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社說

무분별 고층 아파트 최소한의 억제 있어야

광주 동구 구도심에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 및 주상 복합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도심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동구 구도심은 전국의 구도심이 그렇듯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등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역으로 손쉽게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건축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층 건물 건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건축업계와 광주시에 따르면 금남로 4가 옛 중앙교회 자리에 지난 6월 25층짜리 주상 복합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다. 또한 중앙초등학교 인근 22층 빌딩, 수기동 옛 명성예식장 터에 36층 규모의 빌딩 등 3~4곳에 대한 건축 심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중 중앙교회는 애초 1917년 북문안교회에서 독립해 북문밖교회로 불렀다가 1925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꾼 광주 기독교의 역사이며,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태평극장도 1950

년대 도시상영관으로 문을 연 광주 도시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다. 결국 근·현대 도시문화를 간직한 건축물들이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도시의 원형을 간직한 건물들이 사라지는 것도 예상하지만 골목길 위주의 도로로 둘러싸인 부지에 대형 빌딩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교통 혼잡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명성예식장 부지는 현재 36층짜리 주상 복합 아파트 건축 심의가 진행 중인데 이 일대는 승용차 교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가 협소해 교통 심의를 하더라도 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곳이다. 동구청은 구도심 활성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역사와 주변 경관, 도로 여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과 구도심의 총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경관 중심의 건축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기업 4차산업 대비 얼마나 하고 있나

광주 지역 기업들의 4차산업에 대한 대응이 예상보다 훨씬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김형철 남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4차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 지역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4차산업에 대한 지역별 준비 상황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 사회는 인공 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산업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광주 지역 기업은 14.3%에 불과했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평균인 22.1%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손을 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과 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87%와 84%라고 답해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은 10% 수준에 그쳐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전문 인력 및 인재 부족이 가장 컸는데 35.9%의 지역 기업들이 인재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수요 창출에 대한 불확성(32.4%)과 4차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26.3%)을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가 주는 의미는 지역 기업들이 4차 산업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줄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 기업들은 사업 모델 창출을 위한 시장 여건 조성이나 지역 내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화에 뒤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뒤처져서야 되겠는가. 광주시 등 자치단체와 대학 등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지역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양심’(conscience)이란 말은 라틴어(con-scientia)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양심에 대해 고대 철학자들도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한 것 같다. 소크라테스는 “어린 시절부터 내 귀에는 매번 내가 방금 하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채근하지는 않았다”며 양심을 에둘러 설명했다. 로마의 현인 세네카도 “내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성스러운 정신이 살고 있다”고 아리송하게 정의하는 데 그쳤다. 우리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서 헌법상 ‘양심’이라는 법적 용어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앞서에서 쓰이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

리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이 짐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더 구체적으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이 양심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했지만, 또 다른 난제에 대한 해석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에는 일반 신념도 양심처럼 병역 거부와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강제 징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징집 대상자다. 그는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이 ‘신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종교를 믿는 ‘신념’에서 비롯된 종교적 양심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9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